

紙銀字 法華經 全七冊中 第一과 第六의 二冊이 있고 安東廣興寺所藏인 白紙墨書 法華經 全七冊中 第一과 第三의 二冊이 있고 또 同廣興寺에 紺紙金字法華經 全七冊中 第二인 一冊과 同經으로 別種이 第四卷 一冊이 남아 있다. 그리고 夫安來蘇寺에 白紙墨書로 된 法華經全七卷七冊全秩이 現存하나 이것은 李朝 太宗 九年에 造成된 것이다.

그런데 今番에 黃壽永教授가 求해 온 銀字法華經은 全七冊 二十八品 完本이니 이것이야말로 珍寶라고 아니 할 수 없다. 保存도 良好하고 紙魚의 侵蝕이 若干있으나 磨滅된 處는 없고 金銀泥의 着紙도 잘랐고 退色도 되지 아니하였다. 料紙는 紺色壯紙이고 後에 背接修理한 것이다. 表紙는 厚地로서 四邊

에 字母의 雙金線을 두루고 金泥와 銀泥를 섞어서 寶相花紋을 그렸고 幅판이 無地를 남겨 子母雙線으로서 題箋을 표하고 金泥로 「妙法蓮華經第一」이라고 題目을 써서 品位를 돋우게 하였다. 長이 二十八cm 幅이 十cm의 折帖本이고 每面六行 一行 十七字, 天地는 金泥로 서 大線을 치고 行間도 長이 約二十cm 幅約一·八cm로 野線을 긋고 約一·二cm 平方大의 銀字로

全卷을 通하여 同一人의 筆致로서 楷書로 始終如一하게 整齊되고 雅澹하게 써 있다. 變相은 없고 道宣의 弘傳序는 第三卷初頭に 붙어 있다.

이제 그의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卷第一 九十八面 序品 第一, 方便品 第二

卷第二 二百二面 譬喻品 第三, 信解品 第四

卷第三 百四面 藥草喻品 第五, 授記品 第六, 化城喻品 第七

卷第四 百十八面 五百弟子受記品 第八, 受學無學人記品 第九, 法師

品 第十, 寶塔品 第十一, 提婆達多品 第十二, 持品 第十三

卷第五 百十二面 安樂品 第十四, 從地涌出品 第十五, 如來壽量品 第十六, 分別功德品 第十七

卷第六 百八面 隨喜功德品 第十八, 法師功德品 第十九, 常不輕菩薩

品 第二十, 如來神力品 第二十一, 囑累品 第二十二, 藥王菩薩

薩本事品 第二十三

卷第七 九十二面 妙音菩薩品 第二十四, 觀世音菩薩普門品 第二十五, 陀羅尼品 第二十六, 妙莊嚴王本事品 第二十七, 普賢菩薩勸發

品 第二十八

以上으로 全七卷 二十八品 七百三十四面의 完全無缺한 것을 알 수 있다.

卷第七 末葉에 있는 跋文은 다음과 같다.

鴻山郡戶長李 臣起 特爲

嚴侍義方壽倒三松先亡聖善定足躡九蓮普及自他現在未來獲福無邊之願寫

成銀字蓮經七軸廣施無窮者

天曆三年庚午四月日 臣起誌 同願比丘 正因

高麗 金銅舍利塔과 靑盜壺

黃 壽 永

數年來 古塔 重修에 말은 舍利具의 檢出은 그 藏置法의 調査와 더

불어 이 部門에 있어서의 確實한 學的資料를 增加시키었다. 塔婆가 禮拜對象인 舍利의 奉安을 建立의 因緣으로 삼아서 三國以來 歷代의 經營과 莊嚴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舍利藏置의 內容과 方式에 있어서 是 傳承의 因緣과 時代와 因緣과 信仰內容에 따르는 多樣性이 보인다. 또한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 一九五九年에는 慶北 漆谷 松林寺 五層塔에서 同年末에는 慶州 感恩寺址 西三層石塔에서 國立博物館에 의하여 收拾된 新羅의 舍利寶具는 모두가 稀貴한 遺品으로서 우리나라 古代舍利具의 莊嚴을 보여 주었거니와 筆者가 이 곳에 간단히 紹介하려는 一例는 年代에 있어서 그들보다 훨씬 降下하는 것으로서 上記 遺例와는 달리 學術調査에 依하지 않고 出世되었기 때문에 關係知見을 거의 喪失한 遺品이라는 事實을 前提하여 두고자 한다. 一九五八年頃 江原道 所在石塔內에서 發見되어 數年間現地에 保管되었다가 一九六〇年 서울로 搬出되었다 하는데 筆者는 同年 十二月 所藏者인 金東鉉氏의 厚意로 現品을 調査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發見經緯가 分明하지는 못하나 安置되었던 舍利具의 主體로 推定되는 金銅塔 및 舍利容器와 그 收藏器로서의 靑瓷入絲圓壺가 一括收拾되었음은 多幸한 일이었다. 以下 이를 兩分하여 記錄하여 보겠다.

(A) 金銅舍利塔

總高 九 cm 下徑 五 cm (下緣은 두껍다)에 不過한 小型의 金銅塔으로서 圓形을 基本으로 삼아서 基壇 塔身 相輪의 三部가 一鑄되었고 內部는 中空이다.

基壇部는 單條를 둘린 圓座위에 仰覆의 重單瓣蓮座가 竿柱 없이 相接되었는데 圓座에는 三對一로 配置된 圓珠가 等間으로 四組周回하였으며 蓮座는 上下 各 十三瓣인 바 伏蓮單瓣 中央에는 方孔이 하나씩 있어서 上記한 圓珠와 더불어 米痕이 附着되고 있다. 다음에 塔身으로서는 下部에 同心四圈帶와 圓珠文單條의 臺形이 달린 위에 半球에 가까운 伏鉢形이 主體를 이루고 있는데 그 兩肩部는 膨脹하고 下面에 이르는 曲線은 緩慢하다 塔身을 돌아서 長短各三條의 圓珠瓔珞이 四處에 交互로 垂下되었는데 上下端의 大小圓珠內에 嵌朱하였음은 基壇部의 裝飾手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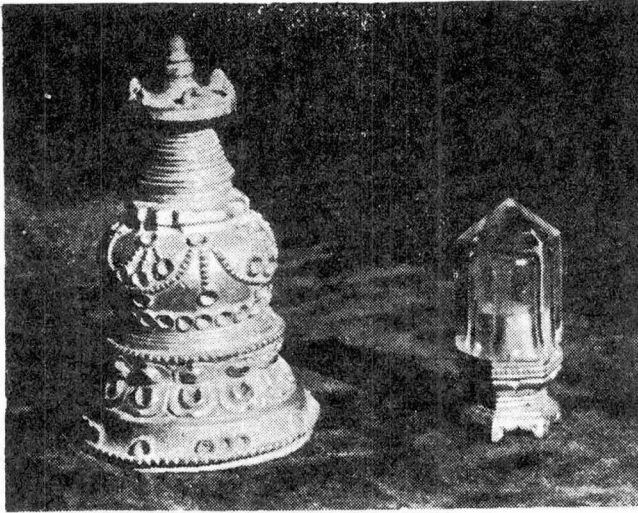
同一하다. 끝으로 相輪部에 이르러서는 塔身上에 露盤形이 먼저 놓이었는데 그 樣式은 斗出星形 임이 注目되었다. 이 같은 形式은 佛國寺 多寶塔 平面에서 上古의 遺例를 볼 수 있는 바 이 金銅塔과 同代의 것으로는 忠南公州 麻谷寺 五層石塔 頂上의 金銅相輪이 있고 開豐 敬天寺 石塔 (今在景福宮) 또는 이와 同系인 서울 圓覺寺塔의 平面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 위에는 圓座 二段이 놓이고 다시 同心圓 三條를 둘린 圓錐形의 相輪이 놓이었는데 그 위의 六角寶盒에는 角마다 隅花가 달리고 四處에 小孔이 뚫려 있는데 이 小孔은 裝飾垂下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最頂部에는 寶珠 一段이 그 밑에 各各 圓座를 달고 만들어졌다. 이 塔은 비록 小形의 工藝塔이라 하더라도 各部의 樣式을 具備하고 있는데 이 塔이 보이는 特異點은 羅麗의 傳統的인 方形石塔 또는 八角圓堂形의 浮圖樣式과는 判異하면서 高麗下代에 이르러 元과의 佛敎文物交流에 따라서 새로히 受容되어 一時 流行을 본 西藏系 喇嘛塔樣式 ①에 屬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金銅製 舍利小塔으로서 同代의 類品이 麗末鮮初의 舍利石塔같은 곳에서 發見되어 國內外에 保存되고 있으니 그 代表的 遺品으로서 國立博物館所藏의 金剛山 月出峰發見의 舍利塔 ②과 美國 보스턴 博物館所藏의 舍利塔 ③④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材質上의 區別이 있다 하더라도 各部樣式이 거의 同一함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이 金銅塔內에는 舍利容器一個가 藏置되고 있었다. 그것은 木製 六角의 蓮花臺위에 또한 六角圓錐形의 水晶製蓋를 얹은 것으로서 總高 五·二 cm 인 바 木臺에는 各面마다 眼象과 仰蓮이 새겨졌고 全面에 鍍金하였는데 그 上面은 圓隆을 이루고 朱를 바르고 있다. 水晶蓋는 內空인데 舍利는 二粒이 檢出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水晶製舍利容器의 藏置는 京畿道 水鍾寺 浮屠 ⑤에서 發見된 金銅舍利塔內에서 또는 上舉한 遺例中에서 發見된 바 있으나 그 形態는 各各 다르다.

(B) 靑瓷入絲 圓筒形壺 一個

이와 같은 水晶容器를 內藏하는 金銅舍利小塔을 收納하고 있던 靑瓷入

絲圓筒形壺一個가 發見되었었다。高十六cm인데 下底에는 徑六·七cm의 굵이 달리고 上頂 또한 徑七·二cm의 口緣이 있어 圓蓋(徑七·五cm)로서 덮게 되었었다。器體에는 黑白入絲가 彫鏤되었는데 그 紋樣으로서는 上肩에 蓮花가 있고 胴部에는 上下가 各各 雷文과 如意頭文를 둘러고 그 사이를 垂下된 連珠文으로서 四區로 나누고 各區마다 左右에 立狀花文이 있고 그 中心에는 九珠圓圈內에 蓮花一朵가 黑白으로 入絲되어 있다。圓蓋는 白入絲를 專用하여 放射線紋을 裝飾하였다。釉澤은 灰青色으로서 鮮明한데 施釉는 内部 全面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이 靑瓷有蓋壺에 金銅舍利塔을 裝置하는 手法은 器形이 다르기는 하나 上學한 水鍾寺發見의 龍泉窯系의 大壺⑤에서 先例를 볼 수 있으며 또 後代의 遺品이나 또는 同形의 圓壺가 墓誌로서 同一地域에서 襲用되었었다는 事實은 하나의 時代的인 特色으로서 羅代의 金銅方形函⑥ 또는 高麗의 靑銅圓盒⑦같은



것과 對照되는 方式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에서 筆者는 高麗下代로 推定되는 舍利具一式을 說明하였거니와 그 中 金銅舍利塔이 當代에 있어서의 새로운 元代 囉嘛塔樣式을 보이고 있어서 既知의 遺品과 같이 比較考察되어야 할 것이며 또 靑瓷圓蓋는 舍利塔과 同代의 作品으로 보아서 그 入絲의 手法이나 紋樣

種別과 더불어 年代가 거의 確實한 一資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同時에 그 發見地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江原道 金剛山 近域이라 함은 當代에 있어서 元王室에 의한 金剛山에 對한 靈場信仰과 그 과도 相關될 것으로 보아서 高麗下代인 西紀十四世紀初頃에 들어 建立된 石塔에 裝置되었던 것으로 推定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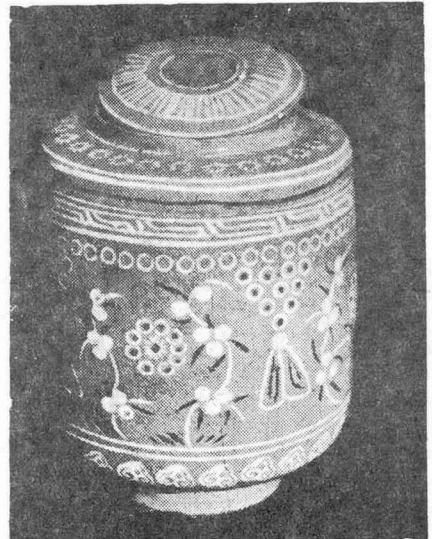
〔附記〕이 一具外에 靑磁有蓋碗(黑白入絲) 一個가 같은 時期에 同一地域에서 發見되어 이것 또한 金氏의 所藏한 바 되었었는데 그 안에 收藏되어 있었다는 有蓋圓形玉器(內面은 銀板으로 싸였었고 銀製小圓盒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는 大邱 辛某氏의 求得한 바 되었다고 하므로 他日의 調査를 期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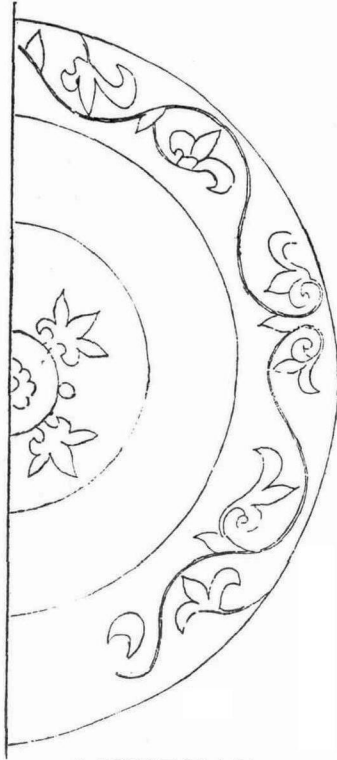
註

① 中國囉嘛塔에 關하여는 村田治郎教授著「支那の佛塔」에 簡明하게 說明되어 있다。

② 此品은 銀製鍍金인데 伴出된 靑銅白磁碗 等の 銘記에 의하여 洪武二十四年(二三九一 A. D.) 李太祖의 發願임이 밝혀졌다。 博物館陳列圖鑑 第六輯 參照

③ 銀製鍍金の 最優品으로서 一九三五年、六年頃 美國보스톤博物館에 收藏되었었다。 同館의 東洋美術部長 富田氏는 此品의 發見場所로서 京畿道 松岩寺를 注目하고 있는데 筆者의 調査에 의하면 一九三五年頃 京畿道 長湍 華藏寺의 指空塔에서 盜失된 바 있는 舍利塔으로 推定된다。 이 塔은 그 直後 서울의 日人





盒蓋實測圖(原寸大)

有文蓋의 靑銅盒

洪 思 俊

- 古物商을 거쳐 日本에 搬出되고 그곳에서 賣却되었다고 한다.
 K. Tomita: Korean Silver-work of the Koryŏ Period,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Feb. 1941
- ④ 噴嘛塔樣式의 石塔으로서는 서울 昌慶苑內 水亭池畔에 移置되어 있는 遺構를 現存 唯一의 作品으로 들 수 있는 바 그 原地點은 詳할 수가 없다.
- ⑤ 博物館陳列品圖鑑 十五輯
- ⑥ 慶州 皇福寺址三層石塔發見 金銅函
- ⑦ 慶州 感恩寺址西三層石塔發見 金銅函 (感恩寺)圖版四十, 四十一參照)
- ⑦ 漆谷若木 淨兜寺三層石塔發見 銅碗(博物館陳列品圖鑑)十三輯)
 原州 令傳寺址 普濟尊者舍利塔發見 銅盒(博物館陳列品圖鑑)十三輯)

一九六一年 十二月 十一日 慶州都市計劃에 依한 市廳 앞 道路南側에 下水道溝를 東西로 新設하기 爲하여 開溝工事에서 意外的 積石塚이 相距 一〇〇m 를 隔하여 二基가 發見되었다. 그 一基에서 寫眞에 보는바와 같은 羅代遺物이 其他土器와 섞여서 發見되었는데 이 靑銅器가 出土됨을 보아 積石塚 中心部를 側溝가 通過한 것 같은데 時急히 學術調査가 要한다고 보는 바 只今까지 發掘에 着手치 못함을 遺憾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現品은 總高(蓋付)가 十二·五cm 로 盒의 高 八cm 口徑 一九cm 下底 徑 八cm 인데 그릇의 굵은 器體와 붙여서 만들어졌으나 內面에서 보면 半球形으로 되었다. 盒의 外表에는 口緣에 二條重圓이 둘러 있고 口緣을 平行해서 器腹에도 等間隔의 凸帶가 二條로 둘러있다. 盒蓋는 高四·五cm 에 蓋徑이 一四·八cm — 一五·五cm 의 橢圓形이나 盒口內에 맞도록 蓋緣이 만들어졌다. 蓋에도 亦是 等間隔의 三條凸帶가 蓋의 꼭지를 中心해서 둘러있다. 그릇꼭지는 대추씨(棗仁) 두개를 連結한듯 上尖中細하며 盒全體에 比하여 작아 보인다. 特히 蓋의 꼭지 周圍의 圓內에는 細線으로 忍冬文樣이 線刻되었는데 高句麗壁畫에서 보는 忍冬文과 恰似

